

최원섭의
불교, K-드라마로 만나다

㉑ '신입사관 구해령'(2019)

기록 남기는 역사의 중요성 전해

조선 중종 14년(1519) 4월 22일 종2품 관직에 있던 김안국이란 인물이 중종에게 여사(女史)직을 두자고 제안한다. 여사는 예전 중국에서 왕후의 의례를 담당하며 그들의 일을 기록하던 직책이다. 김안국의 제안에 중종은 요즘 여인들이 글을 잘 모른다거나 사관은 아무나 할 수 있는 일이 아니라는 등의 이유를 들어 반대했고, 그런 중종의 반대를 여러 신하가 끊임없이 반박하며 중종과 신하들의 논쟁이 벌어졌다. 하지만 최종 승자는 중종. 결국 여사직은 생기지 않았다.

드라마 '신입사관 구해령'은 이 〈중종실록〉의 기록을 바탕으로 조선 시대에 여사 제도가 생겼다는 가정하에 예문관의 권지(權知, 인턴 사원)가 된 여사 구해령(배우 신세경)을 중심으로 예문관 사관들의 이야기를 담고 있다.

청나라 연경에서 서양의 문물을 보며 어린 시절을 보낸 구해령은 서양의 서책이 금서가 되는 답답한 현실을 살고 있다. 어느 날 여사 별시가 열린다는 방을 보고 새로운 희망을 찾은 해령. 송사희(배우 박지현), 오은임(배우 이예림), 허아란(배우 정유빈)과 함께 여인의 몸으로 과거를 통해 예문관의 관직에 오른 해령은 도원 대군 이림(배우 차은우)의 처소를 전담하게 된다. 도원 대군은 국왕의 둘째 아들이지만 어찌된 일인지 궁궐 구석진 허름한 처소에서 유배된 듯 살고 있는 인물이다. 현재 국왕이 폐위시킨 선왕의 아들로 폐주의 아들이라면 당연히 유배를 가거나 죽임을 당했어야 하지만, 대비의 간청으로 겨우 목숨을 부지하고 있다.

드라마의 핵심은 누명을 쓰고 폐위된 선왕의 진실을 기록한 사초(史草)를 찾는 구해령과 도원 대군의 이야기이다. 결국 사초가 발견돼 당시 기록이 조작된 것이 밝혀지고 현 국왕의 반정이 잘못된 것임이 드러난다. 그러자 왕은 칼로 사관을 위협하며 이 상황을 기록하지 못하게 한다. 서슬 퍼런 국왕 앞에서 붓을 멈추지 않고 당당하게 말하는 구해령의 대사가 이 드라마의 백미이다.

"전하, 저를 베셔도 사필은 멈추지 않습니다. 제가 죽은 이 자리에 다른 사관이 와서 앉을 것이고 그 사관을 죽이시면 또 다른 사관이 와서 앉을 것입니다. 전하께서 이 땅의 모든 사관들을 죽이시고 모든 종이와 붓을 빼앗아 가신다고 해도 결코 막으실 수 없습니다. 사람들의 입에서 입으로, 스승에게서 제자에게로, 노인에게서 아이에게로, 그렇게 전해질 것입니다. 그게 진실의 힘입니다."



사진 출처=MBC 홈페이지

사초 찾는 구해령 · 도원 대군 이야기
부처님 설법 · 계율 결집 통해 기록
부처님 법 미래 전하는 것이 우리 몫

이처럼 드라마 '신입사관 구해령'은 구해령과 도원 대군의 로맨스를 기본으로 하면서도 기록이 얼마나 중요한지, 그리하여 그것을 역사로 남기는 일이 얼마나 대단한 일인지를 묵직하게 전한다.

석가모니 부처님이 열반에 들고 가장 먼저 제자들이 착수한 일은 부처님의 가르침과 생활 규범을 정리하는 일이었다. 부처님이 계시지 않는 상황에서 제자들이 의존해야 할 것은 가르침뿐이었고, 무엇이 부처님의 가르침이고 무엇이 아닌지를 정확하게 후대에 전해야 했기 때문이다. 이 과정을 '결집(結集)'이라고 하는데, 아난존자와 우바리존자가 각각 부처님의 설법과 계율을 암송하면 현장에 모인 500명의 제자들이 모두 인정하는 것만을 부처님의 법으로 결정했다. 그리고 그렇게 결정된 가르침은 전원의 암송으로 전승됐다. 그래서 결집을 다른 말로 '합송(合誦)'이라고도 한다. 이후 스승에서 제자로, 입에서 입으로 전해진 '부처님 법어집'은 몇백 년 후에야 문자로 기록됐고 이후 각 지역의 언어로도 번역돼 지금까지 전해지고 있다.

잘 알려져 있는 것처럼 부처님의 설법을 가장 잘 기억하고 있던 아난존자의 입을 통해서 결집이 진행됐기 때문에 모든 경전이 "이와 같이 들었다"라는 말로 시작한다. 이 말과 함께 언제 설법했는지, 누가 설법했는지, 어디에서 설법했는지, 누가 설법을 들었는지를 구체적으로 밝히는 내용이 덧붙어 모든 경전의 정형구가 되었는데, 중국불교에서는 이러한 정형구를 믿음[信, '如是'], 들음[聞, '我聞'], 때[時, '一時'], 설주[主, '佛'], 장소[處], 대중[衆]의 여섯 가지 인연이 갖춰져야 비로소 경전이라고 인정할 수 있다는 의미에서 '육성취(六成就)'라는 말을 쓰기도 하였다.

'육성취'가 경전을 성립시키는 정형구가 될 수 있었던 것은 아난존자가 부처님의 설법을 재현하면서 단순히 말씀만을 전한 것이 아니라 설법이 이뤄지던 상황까지도 구체적으로 함께 거론한 덕분이다. 말하자면 아난존자는 승단의 사관이고 부처님의 법어집은 '부처님 실록'이 된 셈이다. 덕분에 우리는 무려 2500여 년 전의 부처님 설법을 지금 이 자리에서도 생생하게 들을 수 있다.

지금은 전해지지 않아 잘 알려져 있지 않지만 고려도 실록을 편찬했다. 당시 왕궁 안에 보관하는 실록 외에 여벌의 실록을 보관하는 사고(史庫)로 해인사가 포함돼 있었다. 실록을 깊은 산속에 있는 사찰에 나눠 보관함으로써 전쟁 등의 피해를 입지 않게 하려는 노력이었다. 이러한 전통이 조선에도 이어져 정족산(전등사), 묘향산(보현사), 태백산(각화사), 오대산(월정사) 등에 사고를 따로 두고 수호사찰을 지정했다. 결론적으로 고려와 조선의 기록을 만들고 보존하는 데 불교가 큰 역할을 한 것이다. 해인사 장경각에 팔만대장경판을 1000년 넘게 보존해 온 것은 우연이 아니다.

부처님의 가르침과 생활 규범을 잘 따르고 지키는 것이 부처님의 법을 잇는 것이고 그런 사람이 바로 부처님의 법을 잇는 사람이다. 불교의 권위를 부처님이라는 한 인물이 아니라, 기록된 부처님의 가르침과 규범에서 찾음으로써 불교는 현재까지 유서 깊은 역사를 지속할 수 있었다.

긴 세월, 수많은 중생들의 등불이 되어 온 부처님 법을 미래에 전하는 것은 우리들의 몫이다. 부처님의 정신을 오롯이 담으면서도 현대라는 시대에 맞게 후손들에게 전하려는 노력이 있어야 불교가 시대와 호흡하며 영원한 생명력을 가질 수 있다. 그러니 그 옛날 아난존자가 그랬던 것처럼 지금을 살고 있는 우리가 모두 눈 밝은 '사관'이 되고 '여사'가 되어 부처님의 정법을 수호하고 있는 그대로 기록해야 한다. 그것이 바로 이 시대의 불교 역사이기 때문이다.

〈대행선연구원 연구원〉

악법 여의고 선법 닦으며 벗의 그릇·복밭을 떠나지 않아



법공 스님의
〈지장십륜경〉 강의

㊶ 천신의 가호(諸天鬼神加護)

그때 대중 속 천제와 그 권속들은 부처님 발에 정례한 뒤 합장 공경하며 부처님께 사뢰었다.

"세존이시여, 이후 오백세 미래에 부처님 국토에서 법이 멸하려 할 때 만일 착한 왕과 권속 등이 스스로도 이 십종의 악륜(惡輪)을 멀리 떠나고, 남도 권해 떠나게 하면, 자타와 후세와 삼보의 종성을 이어서 모두가 치성하여 끊이지 않을 것입니다. … 그러므로 우리 권속들은 착한 왕과 바라문 등을 옹호하여 십법(十法)으로 더욱 증장하게 할 것입니다.

증장시킬 십법이란 ①수명과 ②어려움 없음과 ③건강과 ④권속을 증장시키고 ⑤재보와 ⑥필수품과 ⑦자재함을 증장시키며 ⑧명예와 ⑨착한 벗과 ⑩지혜를 증장시키는 것입니다.

세존이시여, 만일 착한 왕과 바라문 등이 악법을 떠나고 남도 권하여 떠나게 하여 앞에 말한 공덕을 다 갖추면, 그들을 옹호하여 반드시 십법의 증장함을 얻게 하겠나이다. 또한 우리들은 더욱 힘써 옹호하여 또 다른 십법을 모두 멀리 떠나게 할 것입니다.

떠나야 할 십법이란 ①일체 원수와 적과 ②좋아하지 않는 일체 빛깔, 소리, 냄새, 맛, 감촉 등을 떠남이며 ③일체의 괴로운 병과 ④삿된 집착과 나쁜 소견을 떠남이며 ⑤삿되고 허망한 귀의(歸依)와 ⑥일체 삿되고 악한 재앙과 괴변과 ⑦삿되고 악한 사업을 멀리 떠남이며 ⑧삿되고 악한 벗과 ⑨모든 집(가족, 가문)이 물 고인 진흙탕을 떠남이며 ⑩불시에 요절(夭折)함을 멀리 떠나는 것입니다.

세존이시여, 착한 왕 등이 십법을 멀리 떠나 공덕이 원만하게 되면 우리는 힘써 그들을 옹호하여 제왕, 권속과 그 나라 백성으로 하여금 모두가 십법을 멀리 떠나게 할 것입니다.

또다시 떠나야 할 십법을 말씀드리자면 ①타국의 원수와 적과 ②내 나라 안의 원수와 적을 떠남이며 ③흉악한 귀신과 ④뙤약볕과 큰 가뭄과 ⑤복음(伏陰, 습기)과 비로 인한 막힘을 떠남이며 ⑥때 아닌 때에 한서(寒暑)와 매운바람과 폭우, 서리, 우박 등의 재해와 ⑦나쁜 별의 변괴(變怪)를 떠남이며 ⑧흉년의 굶주림과 ⑨불시의 일체 병사(病死)와 ⑩삿된 집착과 나쁜 견해를 멀리 떠나는 것입니다.

세존이시여, 저 착한 왕 등의 권속들이 앞의 공덕을 닦아 원만하게 되면 우리는 더욱 힘써 그들 모두를 반드시 십법에서 멀리 떠나게 할 것입니다."

그때 세존께서는 천제와 권속 등을 찬탄하여 말씀하셨다.

"착하고 착하다. 그대들은 잘도 서원을 하였으며 그러한 일들은 다 그대들이 할 일이다. 그로 인하여 마땅히 그대들은 긴 밤이 안락할 것이다."

호국불퇴륜심다라니(護國不退輪心陀羅尼)

그때 천장대범천은 부처님께 사뢰었다.

"세존이시여, 원하오니 저로 하여금 미래 부처님 국토에 사는 모든 착한 왕을 위해 '호국불퇴륜심대다라니명주장구(護國不退輪心大陀羅尼明呪章句)'를 설하게 하소서.

그리하면 그 위신력으로써 미래 부처님 국토에 사는 모든 착한 왕으로 하여금 원수와 나쁜 벗에게 항복하지 않게 하고 … 지혜로운 이의 칭찬을 받으며 모든 악법을 떠나 선법을 행하게 할 것입니다.

그리고 일체의 삿된 소견과 삿된 귀의를 항상 떠나 대승을 부지런히 수행하되 용맹스럽고 견고하여 교화해야 할 무량한 유정들을 성취시키며, 지혜는 남을 의지하지 않고도 스스로 선교(善巧)하여 능히 바라밀을 잘 수행하는 진귀한 보배의 복장을 갖추며 … 사섭법을 좋아하고 법의 그릇과 복밭을 떠나지 않을 것입니다."

부처님께서 말씀하셨다.

"천장아, 네가 '호국불퇴륜심대다라니명주장구'를 말하기를 허락한다. 나는 그 위신력으로 인해 미래 부처님 국토에 사는 착한 왕으로 하여금 원수와 나쁜 벗에게 항복당하지 않게 하며, 항상 부처님과 부처님 제자를 멀리 떠나지 않게 하리라."

그때 천장대범천은 곧 '호국불퇴륜심대다라니명주장구'를 말하였다.

"타찌따 무니모례1 무나깔바2 무니흐리따예3 무닉아비짜레4 무나깔짜5 무니찌메6 짤바스7발샤바스8 밀바스9 사르바흐리떼10 뚜챠나흐리뜨예11 바따라쟈 흐리떼12 꾸꾸나므리예13 우빠끄사사르예14 까루나하찌리발15 무니발따발16 스바하17."

… 그때 세존께서 대목건련과 미륵보살에게 말씀하셨다.

"선남자야, 그대들은 이 천장대범천이 말한 '호국불퇴륜심대다라니명주장구'를 받들어 지녀야 하고, 미래 부처님 국토에 사는 모든 착한 왕들에게 전하여, 스스로 받들어 지니게 하고 널리 펴게 하여라."

〈송림사 주지〉



부처님 되는 법을 알려드립니다

모든 사람들을 빠짐없이 부처님으로 이끄는 진원 스님의 경천동지 법문(法門) 이야기

진원스님 I 207쪽 I 16,000원

우리들이 부처님 말씀을 믿고 따르고, 하나님 말씀을 믿고 따르는 것은 극락에 태어나고, 천당에 태어나기 위해서가 아니라 내가 곧 부처님, 하나님이 되기 위해서입니다. 석가모니 부처님은 일체중생이 본래 부처라고 하셨으며, 자신 또한 미혹한 범부로 있다가 마음을 깨쳐 부처가 되었다고 하셨습니다.
우주세계 일체중생과 부처님은 바로 마음의 작용이고, 마음의 작용이 바로 우주세계 일체중생과 부처님, 하나님입니다. 때문에 일체유심조(一切唯心造), 일체는 마음이 짓고 만들고 세운 것입니다. 부처님 되는 법을 알려 드리는 본 저서는 부처가 되는 길을 떠나야 할 우리들에게 올바른 여정을 제시하여 결국에는 우리들 모두가 부처가 되게 할 것입니다.

문의 : 마음출판 054-856-7252 / 010-5366-4905

체질 개선과 건강 회복을 위한 합리적 조건
당신의 날씬한 건강이 시작되는 곳
'초록원웰빙'
since 1984
프리미엄 효소 제품과 다이어트 제품을 만나보세요



NAVER 초록원웰빙 검색
네이버 스마트스토어에서 만나요
강남점 (도곡동 467-24)



김영숙 대표
02-578-1708 / 010-7384-1708